

유동근 “뭐가 보이지? ‘레드’ 첫 대사, 사람 환장하게 만들었죠”

30년 만에 연극 무대...화가 ‘마크 로스코’ 변신
2019년 공연보고 매료...“대사 한줄한줄 놀라워”
엘칸토 소극장 등 1980년대 활동...데뷔 43년차

“뭐가 보이지?”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화가 마크 로스코는 어두컴컴한 작업실을 처음 찾아온 조수 켄에게 다짜고짜 이 말을 던진다. 그의 말에 가방을 움켜쥐고 벽에 걸린 그림을 한참 훑어지게 쳐다보던 켄이 답한다. “레드요.”

마크 로스코와 가상 인물인 조수 켄의 대화로 이뤄진 연극 ‘레드’의 첫 장면이다.

30여 년 만에 무대에 올라 마크 로스코로 변신한 배우 유동근은 “이 한마디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고민했던 대사예요. 극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었죠. 자다가도 ‘뭐가 보이지?’를 말할 정도였어요.”

최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그는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재 화가의 처절하면서도 예술적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끝까지 대본을 놓을 수 없어요. 대사를 외웠어도 계속 허덕이며 분석하고 있죠. 완벽한 로스코가 될 순 없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쉽게 다가가려 했어요.”

작품은 뉴욕 시그림 빌딩 벽화에 얽힌 마크 로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1958년 뉴욕 시그림 빌딩에 자리한 포시즌스 레스토랑에 걸릴 벽화를 의뢰받은 마크 로스코

가 40여점의 연작을 완성했다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사건에서 착안했다. 지난 2011년 국내 초연회 이변이 여섯 번째 시즌이다.

유동근을 무대 위로 불러세운 건 대사의 매력이었다. 이번 공연의 더블캐스트인 정보석의 2019년 공연을 보고 대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곧장 대본을 구해 읽었다. “이제는 한번 덤벼볼 만하다고 생각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방송, 영화와 달리 연극의 묘미는 대화가 큰 점이에요. 의외성도 큰 매력이지요. 어느 날은 대사를 천천히 해보고, 어느 날은 더 크게 말하기도 해요. 실수는 하지만, 울렁증은 없어요. 공연장에 일찍 와서 갑갑한 무대에서 홀로 생각하죠. 오늘 제게 한번 (연기의 신이) 와달라 염원해요.(웃음)”

2인극으로 대사가 깊고 분량이 많은 건 숙제였다. 한 편의 고전미술사를 압축한 듯한 극 내용도 쉽지는 않았다. 자처해 남들보다 3주 일찍 연습에 나섰다. “처음엔 대사를 다 외울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집이 됐든, 차가 됐든 그저 ‘레드’에 미쳐서 계속 떠돌며 외웠죠. 발성 코치와 함께 있어버렸던 옛 기억을 되살리며 연극에 맞는 호흡법과 발성을 다시 익혔어요.”

대사엔 마크 로스코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원작을 쓴 작가가 존 로건의 이름을 인터뷰 내내 언급하며 탄복했다. “혹

지나가는 짧은 한마디에 섬뜩함이 있다. 함축적인 대사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다”며 “대사 한 줄, 한 줄이 마크 로스코 캐릭터 그 자체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존 로건 작가만의 기가 막힌 화술이 나와요. 짙막한 대사에 로스코가 가진 광적인 예술성과 예민함, 완벽함이 드러나죠. 켄에게 니체, 프로이트를 읽어봤냐고 묻는 대사로 사상, 철학도 엿볼 수 있어요. 로스코를 통해 인간의 비극에 접근하고 우리 현실에 메시지를 던져요. 끊임없는 불균형 속에 살아가며, 비극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담아내죠.”

유동근은 1980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43년의 연기 경력을 이어왔다. 중후하고 묵직한 존재감으로 ‘용의 눈물’·‘장녹수’·‘명성황후’ 등 사극으로 흥행하며 이른바 ‘왕전문 배우’로 불렸다. 하지만 사실 배우 생활의 첫 출발은 극단이었다. 극단에서 청소년하고 심부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방송국 공채에 합격했지만 군사정권 시절 TBC 통폐합으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매일 저녁 집 앞 포장마차에서 허탈함을 달래던 청년에게 어느 날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을 걸었다. “당시 배역이 없어 속상하던 제게 방송 작가인 유열 선생님이 엘칸토 소극장을 연결해줬어요. 당시 표도 팔고, 포스터도 붙였죠. 연극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도 했어요. 그때 낙랑공주가 (아내인) 전인화 배우였죠.(1986년 이 작품으로 유동근과 전인화가 처음 만났다.)”

이번 작품을 계기로 무대와 계속 연을 맺을까, 최근 연극 ‘갈매기’를 연출 및 출연하고 있는 배우 이순재도 그의 공연을 보고 격려했다. “선생님이 어려운 배역인데 대사



를 어떻게 다 외웠냐고 하더라. 다음에 연극을 하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손사래 쳤다”고 웃었다.

그는 마크 로스코의 흔적이 흐려질 때까지 다음 작품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마

크 로스코가 제게서 떠나지 않았는데 다음 작품을 할 순 없겠죠. 이 공연의 마지막 장을 지우고 작품과 배역이 소각될 때까지 배우의 수업이예요. 조금씩 조금씩 열어나가면 그때 생각할 수 있겠죠.”

슈주 예성, 솔로 1집 ‘센서리 플로우스’...나른+몽환적 눈빛

오는 25일 발매될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그룹 ‘슈퍼주니어’ 예성이 ‘센서리 플로우스(Sensory Flows)’로 독보적인 분위기를 예고했다. 17일 소속사 레이블SJ에 따르면 예성은 지

난 16·17일 SNS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6시 발매될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센서리 플로우스’의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16일에는 실내, 17일에는 야외에서 촬영된 사진 속 예성은 나른한 듯 몽환적인 눈빛으로 자신만의 무드를 자아냈다. 야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연상되는 듯한 사진 효과가 힙한 매력을 배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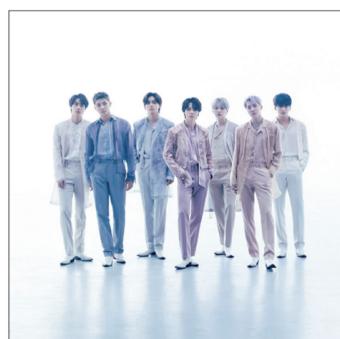
예성은 개인 SNS에 ‘이것은 감각의 흐름 속에 있는 일상이었다(It was everyday life in the flow of senses)’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예성이 그간 선보인 솔로 앨범들과도 다른 콘셉트가 눈길을 끈다. 예성이 이번 ‘센서리 플로우스’로 어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센서리 플로우스’는 예성이 솔로 데뷔 7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다. 타이틀곡 ‘스몰띵스(Small Things)’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예성은 오는 20일까지 세 차례 더 또 다른 버전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글로벌 음악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작년 K팝 음반 전성기...수출액 3000억 근접



지난해 음반 판매량 8000만장 ↑

특히 10위 안에 든 다른 앨범들의 판매량이 디지털 다운로드·CD 뿐만 아니라 바이닐 판매까지 포함한 것을 고려하면, LP로 발매하지 않은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이 포함된 건 더욱 특기할 만하다. 작년에 미국에서 LP가 CD보다 더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1987년 이후 바이닐 레코드가 CD보다 더 잘 팔린 첫 해였다.

특히 작년 미국 내 단일 음반 실물 CD 판매량 톱10 전체에선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가 2위를 차지하는 등 7집이 순위 안에 들며 K팝 강세를 증명했다. RM이 작년 12월 음원·CD로 공개한 첫 솔로 음반 ‘인디고’를 올해 상반기 안에 LP로 다시 내기로 한 만큼, K팝 음반의 LP 발매가 활발해진다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진우 씨클라트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씨클라트에 쓴 칼럼에 따르면, 작년 피지컬 앨범 판매량은 8000만 장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약 2140만 장이 증가한 숫자로, 한 해 음반 판매량 8000만장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K팝이 음반 수출·판매량 호조와 맞물려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 음반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3000억원에 근접했고, 음반 판매량도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8000만 장을 처음 돌파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음반 수출액은 약 2억3311만 달러(한화 약 2881억원)를 기록했다. 작년 음반 수출액 약 2억2085만 달러(약 2728억원)보다 1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숫자다.

K팝 음반 연간 수출액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인 2021년 2배로 경중 뛰어 2억 달러를 돌파했었다.

작년 수출곡 순위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일본(8574만9000달러), 중국(5132만6000달러), 미국(3887만7000달러)이 1~3위에 올랐다.

전체 음반 수출액 중 미국 음반 수출 비중은 2021년(약 17%)과 작년(약 16%)이 비슷하지만,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K팝 4세대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각각 3위와 10위로 지난해 미국 내 음반 판매량 톱10에 드는 등 K팝 그룹이 저마다 현지 판매량 측면에서 각개약진 중이다.

씨클라트 기준 방탄소년단의 ‘프루프’가 348만2598장이 팔리며 작년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됐다. 2위는 ‘스트레이 키즈’의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317만6233장), 3위는 ‘세븐틴’(SVT)의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286만7353장), 4위는 ‘블랙핑크(BORN PINK)’의 정규 2집 ‘본핑크(BLACKPINK)’(252만2941장), 5위는 ‘NCT 드림’의 정규 2집 ‘글리치 모드(Glitch Mode)’(209만5544장)다.

올해도 K팝 음반 판매량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 복무로 완전체 활동은 공백기를 갖지만 상반기에만 지민, 슈가 등의 솔로 활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 K팝 걸그룹 중 유일하게 미국 CD 판매량 톱 10에 이름을 올린 트와이스가 오는 3월에 새 미니음반을 내놓는다. 포스트레이 키즈, NCT 드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대체 그룹들이 기세를 더 올릴 예정이고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등 팬덤을 보유한 4세대 걸그룹들도 새 음반을 잇따라 내놓으며 K팝의 부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이브(IVE), ‘러브 다이브’ 일본어 버전 음원 공개

16일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LOVE DIVE)’ 일본어 버전 음원이 정식 공개됐다.

아이브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최대 연말 음악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 국내 데뷔곡 ‘일레븐(ELEVEN)’과 동명의 곡 ‘일레븐 - 일본어 버전(ELEVEN - Japanese ver.)’을 선보였다. 이에 일본 국내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인 ‘러브 다이브(LOVE DIVE)’의 일본어 버전 음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브 다이브’는 일본 타워 레코드가 선정한 ‘2022 베스트셀러 케이팝 싱글 톱 텐(2022 Best Sellers K-POP Single TOP10, 집계기간 22년 1월 1일~11월 13일)’에서 5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재팬 ‘핫 100 오브 더 이어 2022(HOT 100 of the Year 2022)’에서는 69위를, ‘스트리밍 송즈 오브 더 이어 2022(Streaming Songs of the year 2022)’에서도 50위에 랭크됐다. 또한 빌보드 재팬이 꼽은 ‘아티스트 100(Artist 100)’에서는 29위에 자리했다.



글로벌 음원 강자로 우뚝 선 아이브가 이번 ‘러브 다이브’ 일본어 버전 음원 공개를 통해서 또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 갈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아이브는 오는 2월 11·1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 ‘더 프롬 퀸즈(The Prom Queens)’를 개최할 예정이다.